

모인공원, '청년 문화 공간' 탈바꿈

원광대 학생·주민 문화 참여 공간 조성... 올해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본격화

익산 모인공원이 청년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체험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이번 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시행 중인 민간특례사업의 일환으로 30일 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 같은 조성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모인공원은 '청춘이 One하는(하나되는) 문화놀이터'라는 주제 아래 지역주민과 원광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우선 청년들을 위한 사색과 독서의 공간인 '숲도서관'(북파빌라온), 청년들의 창업공간 '청년가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빛의 갤러리',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술가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해 숲과 초화를 가꾸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칠 '시민참여의 숲&정원',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시교육관과 연계해 전통문화 체험의 장이 될 '전통문화공연장',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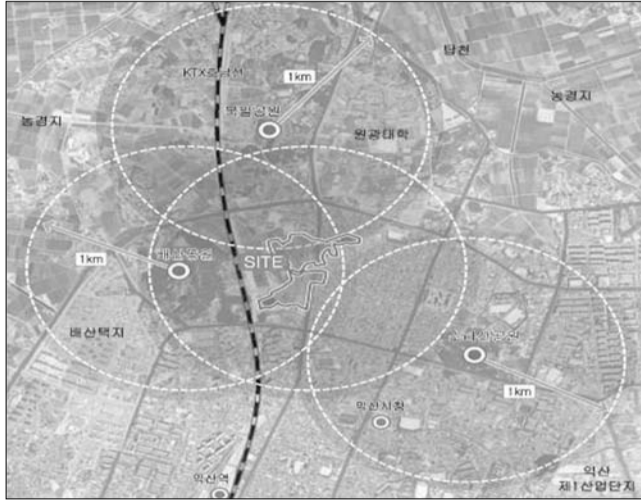
께 어울려 체험하고 놀 수 있는 어린이 복합 놀이공간인 '어린이 스마트채널' 등이 조성된다.

더불어 기존 습지를 활용해 연꽃을 테마로 조성될 '습말·모인연지', 기존 숲을 개선해 재조성할 '마을숲' 등은 모인공원의 녹색 랜드마크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런 계획을 토대로 시는 모인공원을 청년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시설과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도심속 행복한 조경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모인공원도 마동·수도산 공원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2022년 준공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30일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석해 모인공원에 대한 테마 및 주요 도입시설, 향후 추진일정 등을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공원이 많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익산 모인공원이 청년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체험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전했다. 시는 이에 앞서 22일 전문가, 시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도시공원 민간협의회를 개최해 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번 민간협의회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청취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민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원도심 특화거리 '문화이리로' 조성 본격

익산역~국민은행사거리, '빛 만남의길' 하반기 공사착공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원도심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이리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도시재생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이번 사업은 원도심의 중심거리인 익산역 앞부터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최근 기본계획 구상이 마무리됐다.

총 300여 미터 구간에 조성되는 '문화이리로'는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며 '빛 만남의길'이라는 주제로 100년

전 과거부터 미래 유리아 철도까지 이어질 익산역의 찬란하고 밝은 역사를 빛으로 표현한다.

해당 거리 인도의 양쪽 300미터 구간에 기차의 변천과정을 친근하고 재미있는 조형물들로 배치하고 12개의 탄생석(보석)을 모티브로 한 공공시설물(쉼터의자 등)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어두웠던 도심지역을 환하고 다채로운 빛으로 비추는 경관 조형물이 설치되고 그간 도로변 발육이 불량했던 은행나무 가로수를 대신

해 낮은 높이로 간판을 가리지 않도록 사시사철 풍성한 가로수들이 식재된다.

더불어 보행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던 중앙분리대는 익산의 유리아 철도 시발역 구상을 상징하는 중앙분리대로 교체된다.

차량위주의 교통체계로 인해 중앙로 횡단보도가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되고 초목식재와 익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원도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변신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의회 상임위 현장행정 추진

익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익산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제21회 정례회 기간(5.20~6.14) 중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의회는 이번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의결을 앞두고 시정을 충실히 파악해 내실 있는 심의를 펼치고자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구)는 30일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부지와 ECO섬유융합연구원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활동을 벌였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 요청에 따라 사전현장 점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철원)도 이날 (사)사랑의손길 새소망을 방문해 업무보고와 함께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위원들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애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열)도 같은 날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인 산들강 옹포마을을 방문하여 그간 사업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청년 구직활동 디딤돌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군산시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군산형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 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을 촉진하고자 추진되

는 사업이다. 청년수당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중퇴한지 2년이 넘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다. 시는 신청자의 가구소득, 미취업기간에 따른 1차 정량평가 후 구직의지 및 구직활동계획을 토대로

최종 대상자 50명을 선발한다.

6월 말 시 홈페이지 공고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를 안내하며, 선발된 청년에게는 7월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생애 1회(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계(454-4383)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열정의 순간' 반 고흐 미디어아트 특별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익산 W미술관

익산W미술관(관장 신주연)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열정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반 고흐 미디어아트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특별전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알려진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현대 기술과 결합해 움직이는 미디어로 구현한 작품들과 디지털 프린트 작품으로 선보인다.

또한 가장 광범하고 소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그의 흔적과 강력한 색채의 붓 터치로 표현한 그의 작품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공존의 시간 속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미디어아트 특별전에는 W미술관 1기 레지던시 작가 홍준호, 정나영, 주미영 작가들이 참여해 고흐의 작품을 이용한 자



신만의 특색 있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주연 관장은 "우리의 일상이 녹아든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용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W미술관은 매년 특색있는 테마로 미디어아트 특별전을 진행해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6.5% 상승

31일 결정·공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익산시(시장 정현율)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8만619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그 결과 최고지가는 영등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444만5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여산면 태성리 소재 임야 803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7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며 신청은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및 시청 종합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보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국제 및 지방세 부과기준, 개발 부담금, 각종 공영재산 임대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재산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농기센터, 관내 축산 현장 찾아 공감 행정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가 연일 지역 내 축산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축산 농가 방문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대비 가축재해보험 폭려 및 축사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병래 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통신(CT)융복합 기술

을 활용한 냄새 저감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송복 부시장을 단장으로 유관기관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1일부터는 현장추진반을 가동해 적법화 완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광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